

우는 여자

김성찬
서울제3중재부 조사관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저 흐느끼는 수준이 아니었다. 어디서 들도 보도 못한 대성통곡이었다. 처음엔 까다로운 민원인인 줄만 알았다. 그들은 종종 과잉된 감정을 무기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통명스레 전화를 받은 터였다. 하지만 그녀가 한참을 숨이 끊어지도록 울어 심각한 사태임을 직감했다. 우는 그녀를 달래보려 여러 차례 말을 걸어보았지만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만 어렵사리 내뱉었다. 그때야야 깨달았다. 지금 그녀에게 전화한 목적을 구하기보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울음이 그치기를 차분히 기다리는 게 최선임을 말이다.

사정은 이렇다. 모 기관에서 1년 새 성희롱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언론은 그 기관의 노조가 사측을 흔들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노조는 성폭력 사건은 노사 갈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언론조정신청을 했고 한 매체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데에 합의했다. 다른 매체들은 조정심리가 예정돼 있었다. 그녀의 전화는 신청인이 첫 번째 매체와 합의한 후에 걸려왔다. 어떻게 당사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치 않고 합의를 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성폭력 사건으로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면 재차 그 사건이 거론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굳이 절차를 따지자면 그녀는 이번 조정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 결과에 알기할 부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녀가 겪은 고통이 이번 조정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문점은 있었다. 그녀도 해당 노조의 노조원이었기 때문에 노조가 조정대상기사를 상대로 조정신청하는 것을 몰랐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애초엔 합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서 그러나 싶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었다. 노조는 그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정신청을 했던 것이다. 이후 모든 상황을 인지한 그녀는 위원회뿐 아니라 해당 노조 집행부 측에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노조는 뒤늦게 모든 사건을 취하였다.

노조 집행부가 왜 그녀와 상의도 없이 조정신청을 했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노조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곧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도 구제되는 것이라고 여겼을 공산이 크다. 외려 그녀의 항의에 노조 집행부는 당황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남성적인 시각에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데 자칫 무감각하다고 비춰질 소지가 있는 노조의 대응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